

말씀으로 신앙을 맞으라

작성일 : 2011. 1. 20. (목) 밤 11:23

작성자 : 김기자 (서울 주진리영원한교회)

[1월인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 하면 사탄이 총출동해서
떠들어 대며 방해를 했습니다.
찬양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생명을 만날 때도,
사탄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 놓으려
고
마음과 정신을 흔들려고 노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
니다.
보기만 해도 싫은 그들과 자꾸 눈이 마주치자
저도 화나고, 저들은 저들끼리 화내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벽에 기대고 앉아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보
니
어느덧 육의 생각으로 하염없이 빠지게 되어
걱정 아닌 것도 걱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사탄이 진을 치듯 집 밖에서
냄새나는 몸으로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쫓는 것도 지쳐서 주일말씀지(紙)를 꺼내
줄 그어 놓은 핵심 구절 위주로 소리 내어 읽었습니
다.
또박또박 크게 읽었습니다.
그래도 사탄들이 우글우글거리며 주변에서 서성이기
에
저는 바닥에 머리를 대고 “야~~~ 가!” 라고 하며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때 주님이 오른쪽 어깨를 잡으시며
주님을 쳐다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말씀은 너를 살리는 생명줄이니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라.
말씀과 멀어지면 지옥과 가까이 있게 되니
절대 잊지 말고 읽고 또 읽어 네 것으로 만들어
생활 속에 꼭 이루어지게 실천하라.
모든 육과 영의 흐름, 이 지구상의 움직임의 근본은
진리 말씀이다.

말씀으로 사랑의 역사도 이루고
말씀으로 생명 변화도 시키고
말씀으로 구원역사 이루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기에 그러하다.
신의 언어를 사모하는 자는 성령 충만한 자로서,
그 성령의 불을 너 있는 곳에서부터 전달 전달하여
지구촌 저 땅 끝까지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주 예수는 오직 말씀의 능력자다.
오직 말씀으로 탄생되었으며,
말씀으로 행하고 있으며,
말씀으로 운세권도 틀어
이 세상을 넘나들고 있노라.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말씀에서 주 예수를 정확히 보아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외칠 수 있고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에 속한 자로 살면 갖은 죄악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사망 길 가는 인생 되니
너희는 신령한 말씀 속에서 신령한 주를 발견하는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신령한 말씀이니 신령함으로 너와 나의 사랑 이루자.
우리 천년만년을 함께 살아도 늘 처음처럼
신랑 말에 반응하고 기뻐하며 화답하는 신부되어 다오.
영원토록 오직 신부 사랑에 설레고
오직 신부 웃음에 설레고
오직 신부 눈빛에 설레는
네 신랑, 바로 주 예수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준비하고 예비해서
꼭 신랑을 맞아야 한다는 그 간절함 없이는
주의 말씀 들리지 않고
답답한 자기 소리만 들리는 것이니라.
불러볼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진정 준비하고 있느냐?

밝은 등불 각자 준비 됐느냐?

(다시 부르라고 손짓하셔서 불렀습니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

지금 내 물음에 자신 없으면

그날이 와도 지금처럼 주저할 것이다.

자신 있게 “아멘!” 하며 신랑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내 말씀에 온 힘을 다해 귀 기울이며 목숨 걸고 기도하
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깨끗한 사랑이다.

청결한 사랑이다.

고결한 사랑이다.

신랑 신부의 사랑은 너무나 깨끗해서

감히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이다.

깨어 신랑을 기다려라.

깨어 신랑을 만날 준비하라.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주를 맞아야

영화롭고 황홀한 혼인 잔치를 할 수 있노라.

기뻐 춤을 출 수 있노라.

쉬지 말고,

너희가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지

먼저는 내 말씀부터 들어보아라.

그리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았으면 기도에 들어가라.

충분한 기도가 끝나면 움직여라.

행할 것은 행하고 신랑을 기다려라.

신랑이 그날에 네 곁에 홀연히 서 있을 것이다.

충분한 사랑등불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라.

끝없는 은혜로 등불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라.

현 신부에서 새 신부로 거듭나라.

말씀 속에 주 예수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어있으니
늘 말씀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라.

(그 의미를 생각하며 1절부터 다시 불러보라고 하였고
주님도 찬양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눈을 감으셨고
지휘도 해 주셨습니다.

찬양이 다 끝나자 주님은 손을 흔드시며 가셨습니다.)